

청소년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정해인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부모화와 과보호된 자녀들의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서조절양식이 이러한 영향력의 관계에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5개의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남녀학생 504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화와 과보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과보호, 부모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법을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주요어: 대인관계문제, 부모화, 과보호, 정서조절양식

* 본 논문은 정해인(2016)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insoo@ewha.ac.kr

서론

개인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존재함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가장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환경은 부모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 개인의 자아형성에 근원적인 뿌리가 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씨앗이 된다. 이처럼 형성된 대인관계는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울 경우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은 낮아진다(권석만, 2008; 김여흠, 이윤주, 2013). 더 나아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친다(이운기, 2006; Pinkus & Wiggins, 1990).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경험은 이후의 대인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청소년이 상담장면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대인관계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12)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본 결과 대인관계문제가 전체 호소문제의 31%로 가장 많았고, 2015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표한 전체 상담건수 2만 2천 219건 가운데 29.2%인 6천 505건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족문제, 개인적인 심리특성, 외부 환경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attachment)의 질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자기상과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기백, 2014; Mikulincer & Shaver, 2007).

한국사회는 서구의 개인중심적 인간관에 기초한 부모-자녀관계와는 달리 부모-자녀간에 밀착된, 즉 일심동체적인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최상진, 2003). 그렇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는 동일체적 관계로 부모의 기쁨이나 슬픔이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 자신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진다(이운기, 2006). 김효창, 손영이, 박정열과 최상진(2000)은 서구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개별화(individuated)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심정적 교류가 얼마나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이운기, 2006).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부모-자녀관계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양육태도가 부모화와 과보호이다. 부모화란 Boszormenyi-Nagy와 Spark(1973)가 언급한 개념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할 성장기 자녀들이 발달적,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감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아이를 ‘어른스러운 아이’, ‘철든 아

이로 보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됨으로써 일찍부터 아동의 성인화를 강조하였다(조은영, 정태연, 2004). 또한, 부모화된 행동을 통해 성인기에 해야 할 긍정적인 역할을 미리 배울 수 있으며, 적절한 정도의 부모화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주장과(Hooper, 2007), 역경에 대한 탄력성이 증가되어 긍정적인 대처기술과 건강한 분화를 가져올 수 있다(DiCaccavo, 2006; Tompkins, 2007)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다.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이자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적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억압하는 강박적 배려심은 단기적으로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일찍이 Bowlby(1973)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부모화는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의 3영역으로 구분되는데(Jurkovic & Thirkield, 1999) 도구적 부모화는 가족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녀가 떠맡는 책무들을 의미하며 설거지, 청소, 세탁, 심부름, 아픈 부모 및 동생 돌보기, 요리하기 등의 가사업무를 자신의 책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절친한 친구, 동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갈등중재, 지지와 양육자 역할, 위로하기 등으로 아동이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실존적 맥락 안에서 각자의 능력과 자원, 책임 및 의무를 상호 호혜적으로 주고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자녀가 부모 자녀로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Hoffman & Weiss, 1987).

한편 과보호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갖는 염려와 불안, 공포심으로 하여금 자녀의 일상생활, 건강, 교우관계, 진로 등을 넘어서 간섭하고 부담감을 주는 형태를 말한다(Symonds, 1939). 서양에서는 과보호를 정신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과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과보호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으로 보고 이를 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과보호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과보호는 단순히 '익애'나 '간섭'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서 대체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정은영, 2008).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고 여겨 자녀 교육을 통해 부모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성공을 위하여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공부 이외에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러한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더욱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김지연, 오경자, 2011; 정은영, 2008).

즉, 부모화는 부모-자녀의 역할 전이 현상으로 자녀가 부모 및 가족을 돌보는 현상이며, 과보호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지나친 의애적, 통제적인 보호이다. 이 두 현상은 문화적 이유와 자아분화의 문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드러내는 심리적 특징에서 공통점을 갖는다(정수인, 오인수, 2014). Bowen(1976)에 따르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만 자아분화가 안된 사람은 자아 융합의 정도가 심해 주위사람들의 감정에 의존적이며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들과 과보호된 자녀들은 모두 대인관계문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부모화된 자녀들의 경우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될 때 불공평감을 느끼게 된다(조은영, 2004).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불공평한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타인을 통제하려 하며, 경쟁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Robinson, 2000). 또한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하려는 태도보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박아청, 1998). Doh와 Falbo(1999)는 아동이 과보호를 받을수록 사교적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박주희(200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주도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듯 부모화와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화와 과보호 경험의 정도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부모화와 과보호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심리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목하였으며(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Cohn, Jakupcak, Seibert, Hildebrandt, & Zeichner, 2010;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더 나아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시 우울장애, 불안장애, 물질관련 장애, 섭식장애, 신체화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병리를 초래한다고 밝혔다(Buckholdt, Parra, & Jobe-Shields, 2010; Green, Cahill, & Malhi, 2007; Kobak & Ferenz-Gilles, 1995; Mennin, Heimberg, Turk, & Fresco, 2005; Taylor, Bagby, & Parker, 2000).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옥, 박기환 2007; 이경희, 김봉환, 2010; 이민선, 채규만 2012; 이시은, 2009). 정서조절이 높은 아동들이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은경, 송영혜 2008; 한유진, 2007)가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밝혀졌다. 즉 적응적인 정서조절은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반면,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서조절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이승은, 남은영, 2011)를 살펴볼 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

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또래들에게도 인기가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Calkins와 Hill(2007)에 따르면 유아와 아동은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의존적으로 조절하지만, 청소년기엔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내재화하면서 발달시켜나간다. 이때 습득되는 정서조절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대인관계의 질, 문제해결과정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지영, 2016; Diamond & Aspinwall, 2003).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겪는 문제들은 정서조절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최성환, 최해연, 2014;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그러나 정서조절이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었다. 정서조절양식은 크게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 추구적 양식, 세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설명되는데(윤석빈, 1999), 이러한 양식들은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과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독립적인 양식으로 사용된다. 능동적 양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며, 회피-분산적 양식은 기분을 나쁘게 한 상황이나 문제들로부터 회피하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지추구적 양식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조절양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우울, 불안,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안녕감,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효능감 등에 관한 연구들(김아름, 조한익, 2015; 박종욱, 박기환, 2007; 박송이, 채규만, 2012; 이정은, 이은진, 2014; 장미애, 양난미, 2015)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서조절양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능동적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으로,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적응적인 양식으로 분류된다.

특히,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보다 억압함으로써 타인의 요구를 맞추는데 익숙해있어 자신의 정서조절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밀착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변화에 맞는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익히지 못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부모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핵심감정을 발달시키지 못한 채 미분화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Miler, 1981).

그렇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한 범주인 정서조절양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정서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지만 부모화 과보호,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역할을 확인하거나 매개적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는 양육태도 중 부모화와 과보호와 정서조절양식,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며,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양식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요 호소문제인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정서조절 접근에 대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인관계 문제에 정서조절양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화와 과보호 및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는가?
3.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5개의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남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550부 중 5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설문지 부를 제외한 50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53명(50.2%)이고, 여학생이 251명(49.8%)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5세가 81명(16.1%), 16세가 122명(24.2%), 17세가 153명(30.4%), 18세가 148명(29.4%)으로 고등학생이 다소 많았다.

측정 도구

부모화 척도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부모화 정도의 측정은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부모화 척도(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를 이정숙, 김은경(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FRS-Y는 청소년을 위한 3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 부모화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도구적 돌봄 .727, 정서적 돌봄 .572, 불공정성이 .796 이었으며 부모화 전체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5로 나타났다.

과보호 척도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과잉기대, 과잉간섭, 투사적 과보호, 밀착통제, 자녀 분리불안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자녀 분리불안을 제외한 20문항으로 과보호를 측정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03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과잉기대는 Cronbach's α .807, 과잉간섭은 Cronbach's α .728, 밀착통제는 Cronbach's α .771, 투사적 과보호는 Cronbach's α .79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KIIP-CS)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ñor(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 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를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단축형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를 사용하였다. 척도 구성은 각각 5문항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형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자기보고형 Likert형 척도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 척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6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양식척도

이 척도는 윤석빈(1999)이 개별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선택과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개발한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 임전옥, 장성숙(2003)이 수정한 것이다. 총 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조절양식을 요인분석한 결과, 능동적 정서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 3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되며, 이러한 양식들은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과 상이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독립적인 양식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 .875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능동적 정서조절양식은 Cronbach's α .830,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은 Cronbach's α .812,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은 Cronbach's α .877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각 자료의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응답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량을 측정하였다. 부모화와 과보호,

대인관계 문제, 정서조절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인의 하위변인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화와 과보호,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4단계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관계 문제는 부모화($r=.303$, $p<.01$)와 과보호와 정적상관을 가진 것($r=.340$, $p<.01$)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양식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 변인 중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r=.339$, $p<.01$)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r=.136$, $p<.01$)와 과보호($r=.183$, $p<.01$)도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1	4-2	4-3	M	SD
1. 대인관계 문제	1						1.86	.33
2. 부모화	.303***	1					1.65	.50
3. 과보호	.340***	.428***	1				2.11	.69
4-1 능동적 정서조절	-.061	.164	.080	1			3.21	.74
4-2.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339***	.136***	.183***	.184***	1		3.07	.76
4-3.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047	.032	.006	.544***	.227***	1	3.14	.74

*** $p < .001$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에서 정서조절양식 중에서 회피-분산적 정서

조절 양식만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 중에서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한 결과 회피-분산적 양식($\beta=.275, p<.001$), 부모화($\beta=.175, p<.001$), 과보호($\beta=.211, p<.001$)의 순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세 변인은 대인관계 문제를 약 21.3% 설명하였다.

<표 2> 부모화와 과보호,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대인관계 문제				
	β	t	ΔF	R ²	Adj R ²
1. 부모화	.175	3.928***			
2. 과보호	.211	4.697***	44.848***	.218	.213
3.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275	6.696***			

*** $p < .001$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1단계로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는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 분산적 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6, p<.01$). 즉, 부모화를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할수록 회피-분산적 양식을 사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화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화는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3, p<.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화에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을 투입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beta=.262, p<.001$)와 회피-분산적양식($\beta=.302, p<.001$) 모두 대인관계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2단계에서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303이었으나 3단계에서 회피 분산적 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62로 감소하였다. 즉,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Sobel test 결과,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2.710, p<.001$).

<표 3>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값	F	R ²	Adj R ²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1	부모화 (예측변인)	.136	3.030**	9.180**	.018	.016
대인관계문제 (준거변인)	2	부모화 (예측변인)	.303	7.933***	62.932***	.092	.090
대인관계문제 (준거변인)	3	부모화 (예측변인)	.262	7.287***	53.894***	.182	.179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302	6.311***			

** $p < .01$, *** $p < .001$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과보호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단계로 독립변인인 과보호와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보호가 정서조절양식 중 회피-분산적 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2, p < .001$). 즉, 과보호된 양육방식을 경험할수록 회피 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과보호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보호는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9,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과보호가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을 투입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보호($\beta = .279, p < .001$)와 회피-분산적양식($\beta = .288, p < .001$) 모두 대인관계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확인된 과보호가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는지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339였으나 3단계에서 회피-분산적양식이 통제되었을 때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79로 감소하였다. 즉, 회피-분산적양식은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Sobel test 결과, 회피-분산적 양식은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Z = 3.315, p < .001$).

<표 4> 과보호와 대인관계 문제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값	F	R ²	Adj R ²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1	과보호 (예측변인)	.172	3.820***	14.594***	.030	.028
대인관계문제 (준거변인)	2	과보호 (예측변인)	.339	7.933***	62.925***	.115	.113
대인관계문제 (준거변인)	3	과보호 (예측변인)	.279	6.643***	55.368***	.190	.186
		회피-분산적 (매개변인)	.288	6.852***			

*** $p < .001$

논 의

이 연구는 부모화와 과보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양식 하위영역들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청소년의 상단에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모화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부모화, 과보호 순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송이, 채규만(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부모화가 높은 자녀들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를 겪는다는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201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좌절감을 겪지 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상황을 피하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호호혜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불공평한 느낌을 경험하는 부모화된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 Chase(1999)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강한 불안감이 자녀의 활동을 제한하여 적절한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이며,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들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자율성들을 습득하지 못해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한 개인의 건강한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부분 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화는 그 자체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문제가 더욱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문비, 2006; 박현정 외, 2011; 전소연, 이정운, 2012)과 일치하며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최윤미, 2015) 그리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이민선, 채규만, 2012)에 의해 뒷받침 된다.

부모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타인에게 도구적·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오히려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자신의 애씀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즉, 불공정을 경험할 때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의 경험은 대인관계 문제의 전 영역에 걸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공정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어른스러움을 보이기 때문에 철든 아이로 여겨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경험하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대신 바람직하게 여겨질 만한 정서들만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질 정서들은 다른 생각들로 돌려버리며 회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억압한 채로 관계를 맺어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부모화 된 자녀들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면서까지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조은영, 2004). 그렇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화된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부모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효는 아니며 자신의 발달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임을 인식시키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화된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나 이는 건강한 자아발달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며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서를 회피하는 방법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킴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 역시도 자녀의 과도한 어른스러움이 오히려 정서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유발한 다는 것을 부모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과보호 경험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 역시 그 자체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들(문혁준, 2000; 이지희, 문혁준, 2008)과 일치하며 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한다는 연구(김성희, 정옥분, 2011) 그리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이민선, 채규만, 2012)에 의해 뒷받침 된다.

과보호를 받은 자녀들의 경우 통제와 애정의 경계선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고 이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어렵다. 과보호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의존적이며 공감능력이 결여되는 특성을 지닌다(정은, 2012). 또한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자녀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장하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배우며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을 느끼기 전에 미리 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재해석하여 적응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는 Adler가 부모가 자녀 주의를 맴돌면서 자녀 스스로 해야 할 과제를 빼앗아 자녀의 정서 발달상의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Nelson & Erwin, 2000). 또한 자녀의 일시적인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거나 자율적인 의지를 통제할 경우 자녀를 신경질적이며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는 자녀가 정서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며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등 미숙한 정서처리양식을 야기시켜 자녀의 올바른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부모의 과보호적인 태도에 의해 양육된 청소년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바람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속적인 부모의 통제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상담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바람을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존중받으며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기회를 선택하며 실행 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파악할 때 부모의 과도한 통제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김을 알리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보호된 자녀들이 정서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상담을 통해 이를 재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반된 개념의 두 양육태도인 부모화와 과보호가 대인관계 문제,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부모화와 과보호의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의 양육 방식 중 부모화와 과보호 두 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정서조절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며 이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정서조절양식의 경우 회피-분산적 양식만 부분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정적인 조절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하위 요인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왜 긍정적인 조절양식의 영향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 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人間發達研究, 18(3), 69-92.
- 김아름, 조한익 (2015).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297-314.
- 김여흠, 이운주 (2013).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 상담학연구, 14(3), 1597-1604.
- 김영환, 박은영, 권정혜, 홍상황, 조영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정서조절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서능력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7-147.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효창, 손영이,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분석.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0).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0(1), 25-42.
- 박경옥, 박기환 (2007).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3, 77-95.
- 박송이, 채규만 (2012).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49-468.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학회, 30(2), 35-49.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2). 2011년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사례 실적 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승은, 남은영 (2011). 부모의 공감, 아동의 또래관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한국 심리치료학회지, 3(1), 41-56.
- 이시은 (2009).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863-1876.
- 이운기 (2006).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 - 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은경 (2007).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의식정서가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심리치료학회지, 2(1), 27-44.
- 이정은, 이은진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6(2), 93-107.
- 이지영 (2016).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217-244.
- 이지희, 문혁준 (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미애,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애착회피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273-292.
- 전소연, 이정운 (2012).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人間理解*, 33(1), 185-200.
- 정수인, 오인수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887-901.
- 정은 (2012). 통합교육적 맥락에서 살펴 본 현대사회 과보호 양육의 문제에착이론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13(2), 23-43.
- 정은영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최상진 (2003).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성환, 최해연 (2014).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833-855.
- 최윤미 (2015).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백 (2014).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59-178.
- 한유진 (2007).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oszormenyi, L.,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Buckholdt, K. E., Parra, G. R., & Jobe-Shields, L. (2010). Emotion dysregulation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parental magnification of sadness increases risk for binge eating and limited control of eating behaviors. *Eating Behaviors*, 11(2), 122-126.
- Calkins, S. D., & Hill, A. (2007). *Caregiver influences on emerging emotion regulation*. In J. J.

-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29-24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Sage Publications.
- Cohn, A. M., Jakupcak, M., Seibert, A., Hildebrandt, T. B., & Zeichner, A. (2010).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men's restrictive emotionality and use of physical aggressio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11*(1), 53-64.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iCaccavo, A. (2006). Working with parentification: Implication for client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9*, 469-478.
-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 over 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Green, M. J., Cahill, C. M., & Malhi, G. S. (2007). The cognitive and neurophysiological basis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3*, 29-42.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4), 322-337.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 Kobak, R., & Ferenz-Gilles, R. (1995).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functionalist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183-192.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 544-554.
- Mennin, D. S., Heimberg, R. G., Turk, C. L., & Fresco, D. M. (2005). Preliminary evidence for an emotion dysregulation mod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3*, 1281-1310.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Press.
- Miller, A. (1981). *Prisoners of childhood: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 and the search for the true self*. New York: Basic Books.
- Nelson, J., & Erwin, C. S.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New York: Prima.
- Pink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353.
- Robinson, B. E. (2000). Workaholism and family functioning: *A psychological profile of family members*. In Robinson, B. E. & Chase, N. D. (Eds.). *High-performing families: Causes, Consequences, and clinical solution*.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A. (2000).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8(6), 603-604.
-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113-123.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Interpersonal Problem: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ein Jeong Insoo Oh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In particular, adolescent's emotional regulation style was assumed to mediate the influence of the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venes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A survey was conducted for 504 students in the five middle and high schools.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verprotectiveness,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interpersonal problem.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overprotectiveness, and parentific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listed order. Second,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 Finally, in terms of the relations between overprotective and interpersonal problem, avoidant-distr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d mediating effect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study suggests that counseling intervention should be required for adolescents in terms of regulating their emotions and dealing with problems.

Key word: interpersonal problems, parentification, overprotectiveness, emotional regulation style

